2023

통일백서

UNIFICATION WHITE PAPER

WWW.UNIKOREA.GO.KR

통일부

대한 고증연구는 물론 복원 설계된 건축물을 VR콘텐츠로 개발하여 순회 전시회에 활용하였다.

2020년부터 시작한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 전시'는 남북문화유산 발굴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2022년에는 수도권 이남 지역인 부안(4.22~7.17.), 천안(5.20~7.31.), 하남(8.2~9.18.), 대전(8.16~10.15.), 부산(10.15.)에서 진행하였다. 그 결과 관람객이 지난 2년에 비해 크게 증가(2020년 2개 지역 11,950명, 2021년 4개 지역 28,067명, 2022년 5개 지역 41,678명)하였고, 96% 이상의 관람객이 만족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일부



개성 만월대 순회 전시 VR체험(8.16.~10.15, 대전)

(2)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하 사업회)는 남과 북,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겨레말'을 집대성하고 이를 사전으로 편찬하기 위해 2005년 결성되었다. 남북 간 협의를 위하여 사업회에 남측편찬위원회와 북측편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남북이 각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남측편찬위원회에는 10인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회는 그간 총 25회의 남북공동편찬회의를 개최하여 『겨레말큰사전』에 수록할 30만 7천 개의 표제어를 선정하였다. 또한 남북 간 표기법에 합의하여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2016년 이후 남북공동편찬회의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시행하였다. 남북 간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표제어를 대상으로 교정·교열 작업과 말뭉치(평소 우리가 쓰는 말이나 글에서 표본이 될 언어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모아 놓은 언어 자료) 정리, 삽화 그리기 등을 추진해왔고, 대북 협의용 『겨레말큰사전』 가제본을 제작하는 등 남북공동편찬회의 재개에 대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사업회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을 높이고자 다양한 홍보사업도 진행하였다. 『겨레말큰사전』 온라인(3D) 홍보관과 유튜브 '겨레말 TV'를 상시 운영하고, 남북 전문용어·남북 수어(手語) 등을 주제로 한 카드 뉴스를 제작·배포하였다. 남북의 기초 생활용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남녘말 북녘말」 스마트폰 앱을 운영하는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2022년에는 편찬 성과를 활용한 소사전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 ㉠-㉤』을 발간(10.9.)하여 전국의 교육청과 도서관 등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겨레말큰사전』 편찬과정을 교과서에 수록(총 32종, 8과목)하는 등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남북 언어문화 이해와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2022년에는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넓히기 위해 부산(7.19.), 전주(9.27.), 청주(11.19.)에서 '전국 겨레말나들이' 오프라인 행사를 추진하였고, 이를 유튜브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 ㉠-㉤』


제3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11.3.~4.)

'겨레말TV'를 통해 생중계 하였다. 한편 2021년에 이어 2022년 11월에도 유네스코와 함께 '제3회 국제학술포럼'을 개최(11.3.~4.)하여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2 종교 및 학술·문화예술 교류

종교, 학술·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민간의 사회문화교류를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이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고 군사도발에 나서면서 남북교류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종교 분야에서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우리 종교단체 및 종단들이 조선종교인협의회 등 북한의 종교단체들과 서신 교환 등의 대화 노력을 이어갔으나 북한의 호응은 없었다. 또한 학술·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북한측과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실질적인 교류가 재개되지 못하였다.

통일부장관은 각계 종교 지도자들을 예방하는 한편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당부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계기마다 남북 사회문화 교류 재개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며, 북한의 태도변화 촉구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 등 교류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3 남북 체육교류

체육 분야에서도 북한이 코로나19로 각종 국제체육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있어, 남북한 체육교류가 성사되지 못하였다. 2021년 9월 북한은 「2020 도쿄 하계 올림픽」 불참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자격정지 제재조치를 받은